

2017 한경 골프박람회



참가업체의 신뢰도 제고, 제품의 시장성 검증
전문 비즈니스의 장

2017 한경골프박람회

Main Title _명칭

2017 한경골프박람회

Purpose _목적

국내 골프 산업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
골프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

Organizer _주최

한국경제신문

Period _기간

2017. 10. 12(목)~ 15(일)

Venue _장소

SETEC 1,2 전시장

Profile _품목

골프장비, 골프패션, 골프인프라, 골프테크닉, 골프서비스 등

Sponsor _후원

대한골프협회, 한국프로골프협회,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



SETEC(Seoul Trade Exhibition & Convention)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
- 면적 15,630s/m, 서울산업진흥원 운영
- 3개의 전시장 보유, 별도 컨벤션공간 보유

참가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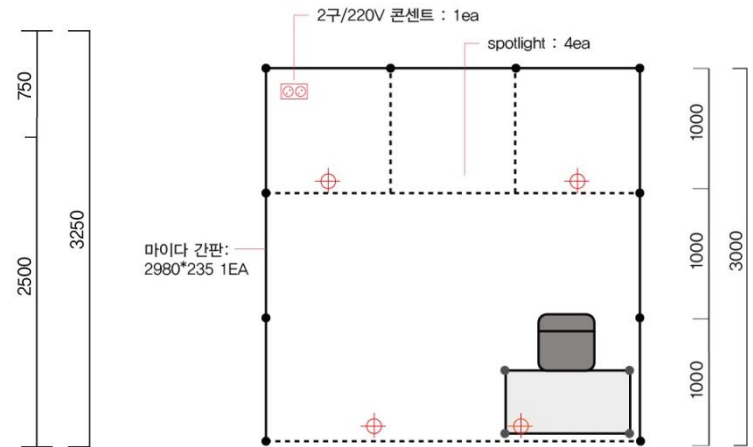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: 8/7(월)부터 부스 소진시 마감
- 조립부스(3m*3m) **198만원(부가세포함)** *테이블1,의자1,전기1KW포함
- 독립부스 (3m*3m) **165만원(부가세포함)** *독립부스는 공간만 제공
- 물품반입: 10/11(수) 오후2시 이후
- 물품반출: 10/15(일) 오후6시 이후_행사 종료후 철거시작



<조립부스 이미지>



▲ FRONT VIEW



▲ TOP VIEW

박람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상시 홍보프로그램 운영

한국경제신문

- 행사 관련 뉴스 보도
한경미디어그룹(신문, TV, 닷컴 등) 매체 활용
- 박람회 기사, 지면광고 게재
박람회 개최 알림, 현장기사, 온라인특집호 발간
관람객 유치를 위한 지면 5단 광고 게재
- 제휴 미디어 활용 행사 홍보
CU미디어, Sky HD 등 스크롤, 영상홍보 추진

온/오프라인

- 박람회 홈페이지 활성화
사전등록시스템 운영, 각종 이벤트 실시
모바일 페이지 제작을 통한 접근경로 다변화
- 온라인 키워드/배너 광고 실시
주요 포털 내 키워드 광고 실시 (네이버, 다음 등)
- 지하철, 육교현판 등 매체광고 실시
대중교통, 주요시내 게시대 광고 실시

참가신청 및 문의

엠체널 골프박람회 담당

Tel. 032-541-3300 / Fax. 032-232 1045 / E-mail. mchannel0122@naver.com

한국경제신문 골프박람회 담당

Tel. 02-360-4518 / Fax. 02-360-4502 / E-mail. ssi@hankyung.com

참가비 납입

우리은행 052-286662-13-001(예금주 한국경제신문) ***입금시 업체명 반드시 기재**

홈페이지

www.golfshow.kr(신청서 다운로드)

한국경제신문

Tel. 02-360-4518
대외협력국 신성일 PM